

4년간의 성장 일기

-진로 설계와 성장한 역량 중심으로-

제출일	2021.06.02
발표일	2021.06.03
학번	201810438
이름	이효정

<목차>

I. 교육학과 학생으로서의 나	1
II. 꿈(진로): 수업 능력과 연구 능력을 겸비한 교수	2
III. 역량 및 수상 경력	3
1. 연구 역량	3
2. 수업 및 발표 역량	5
3. 기타 역량	6
4. 수상 경력	6
IV. 끝나치며	7
* 결과물 목록 및 요약	8
* 부록	9

1. 교육학과 학생으로서의 나

고등학교 시절 공부하는 것에 흥미가 없어 비교과 활동에만 몰두하고 학업에 소홀히 했었다. 그러나 대학에 오고 나서는 여러 활동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고,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신입생 시절 처음 마주한 프로토콜이라는 과제는 혼자 해내기 벅찼고, 널널해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시간을 맞추고 계획을 세워 과제를 수행하고 여러 비교과 활동에 도전할 수 있었다. 교육학개론 속의 주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1학년 때의 스터디를 지나, 각 전공과목의 분량을 나누어 공부하고 서로 알려주는 2학년 때의 스터디,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대외활동에 참가한 3학년 시절의 스터디까지 대부분의 대학생활을 이 친구들과 함께했다. 이 스터디는 공부를 하는 데에 자극제가 되어주었으며,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4년의 대학생활을 무사히 걸어올 수 있었다.

사실 단 한 번도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혹은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교사의 꿈은 더욱이 가져본 적이 없는 필자에게 교육학과를 진학하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마주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타 전공보다 공부하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 전공 서적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적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입학하고 1학년으로 지내는 기간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교육학은 두루뭉술한 내용만 배우는 비효율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2학년이 되고 교육행정을 비롯하여 교육철학, 교육공학 등 다양한 전공을 접하게 되었고, 15주 동안 배우는 것만으로는 그 전공을 알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공부에 흥미를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었다. 금방 사그라질 것으로 생각했던 공부에 대한 열정과 흥미는 3학년이 되어서도 유지되었고,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교육학에 진학한 것은 필자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해 준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한편, 재학기간 동안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병행하였다. 서울시학교박지원센터에서 활동한 인턴십을 시작으로 건강취약청소년 대상 멘토링, 북한이탈주민 대상 대안형 기숙학교 등 교육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강의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로 볼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삶을 살아가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안형 기숙학교와 건강취약청소년 대상 멘토링과 관련한 경험은 현재의 나의 삶에 만족하고, 더욱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기회를 주었다.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과제와 병행하면서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으며, 나와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그 존재 자체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지금은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위와 같이 교육학과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험한 모든 활동을 참고하여 변화하고 성장한 필자의 모습을 꿈과 역량으로 주제를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꿈(진로): 수업 능력과 연구 능력을 겸비한 교수

졸업 이후 학업을 이어나가며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독립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 능력을 갖춘 후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부 초반에는 교육학에 대한 흥미가 없어 진로 구체화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문화부에서 연극을 준비하며 무대 디자인과 같은 공연 예술 쪽에 흥미가 생겼고, 평생교육사로 활동하며 예술적 능력을 결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가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려 했었다. 하지만 2학년이 되고 전공과목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교육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더 배우고 싶은 욕구와 고민은 대학원 진학이라는 결정을 하게끔 하였다.

학교에 다니며 과제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해보면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었던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글을 쓰도록 한 ICA 등 다양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연구자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데이터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고 연구에 대한 흥미를 갖게끔 하여주었다. 연구자라는 꿈이 생기고 나니, 어떤 분야를 계속 탐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주로 청소년 학습자, 중등교육에 한정되어 배우고 있어, 성인학습자를 비롯하여 학교를 넘어서 다른 환경에 존재하는 교육에 관한 궁금증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고등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이 시기쯤 소아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교육사회학 강의를 통해 '의학교육학'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다. 멘토링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심리상태 및 정서와 가치관 형성에 의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고민하였던 것이 관심의 씨앗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고민은 의과대학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지식을 제외하고 의사로서의 윤리적 측면, 또는 환자와의 교감을 위한 심리적 측면,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적 측면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또, 인간의 발달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학습 특성이 환자들에게서도 같게 나타나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있는지 등 의과대학 내의 교육과정 관련 관심도 자연스럽게 두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해당 학문이 교육학 전공자에게는 기회가 열리지 않아 학문에 관한 관심을 접으려던 와중, 우연히 의학교육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닿게 되었다. 이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의학교육학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의사와 교사(교육자)는 추구하는 방식과 도구가 다를 뿐 인간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교 교육에 갇혀있던 필자에게 의학교육이 교육학적 지식을 다방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기도 하다. 의학교육이라는 분야를 선택함으로써 의학과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과정 등의 교육학적 지식을 다양하게 접목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교육학에 대한 넓은 안목을 활용하여 의학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부에서 공부한 교육학적 지식과 새로 배우는 의학교육 환경의 지식을 활용하여 훌륭한 교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III. 역량 및 수상 경력

교육학과에서의 생활과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역량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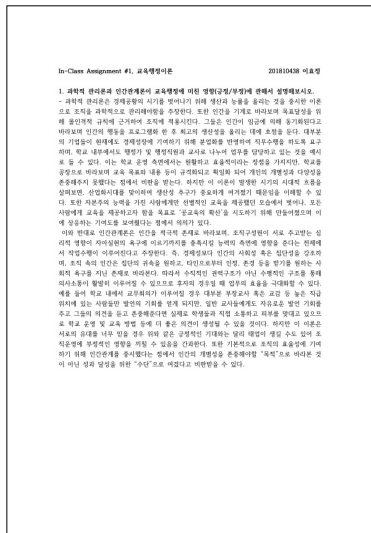
1) 글쓰기 능력과 체계적 접근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논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활용교육을 듣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검색하여 읽고 요약해보는 연습을 거쳐 아래의 결과물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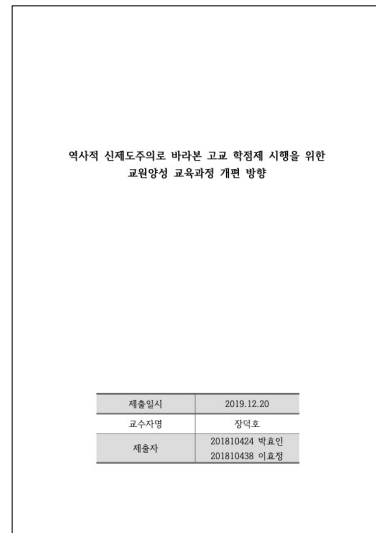
교육행정 ICA는 질문에 대한 나의 주장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논문을 통해 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처음으로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가져다준 과제였다. 또, 교육정책론 기말보고서는 대학생활에서 수행한 과제 중 노력을 가장 많이 쏟은 글로써 타 과생들을 섭외하여 인터뷰하고, 전사 및 코딩하여 결론까지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심화소모임인 SM-URP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를 돌리고 작성한 과제물을 학교와 고용조사 분석시스템에 제출하여 두 군데 모두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으며, 글쓰기에서 논리와 근거를 갖춰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는 앞서 언급한 과제물들의 예시이다.

① 교과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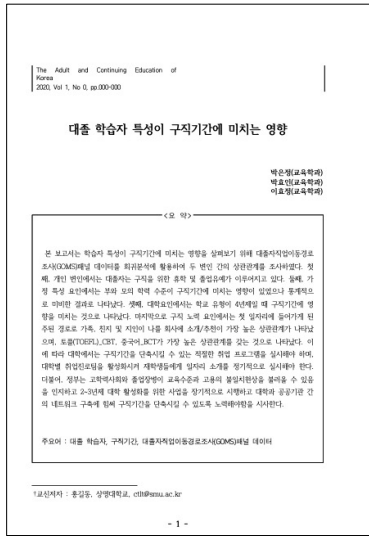


[그림 1] 교육행정 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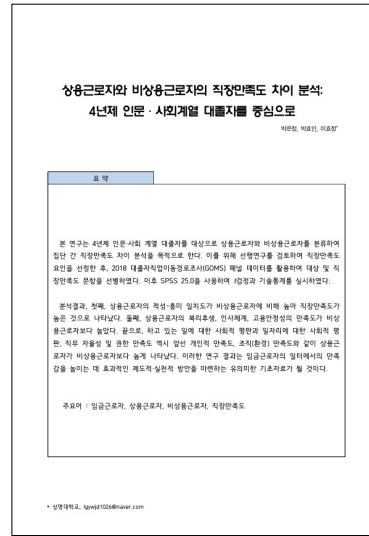


[그림 2] 교육정책론 기말보고서

② 비교과 결과물



[그림 3] SM-URP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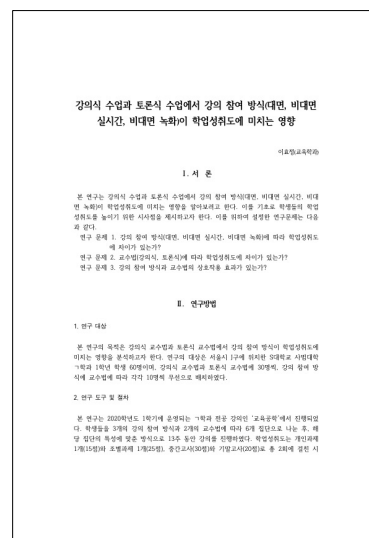
[그림 4] 2020 고용조사 브리프 경진대회 레포트

2)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능력

연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엑셀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준비하여 취득하였다. 또한, 학부의 교육통계 강의와 더불어 대학원의 교육통계학 강의를 수강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통계적 기초를 닦음과 동시에 통계 프로그램인 SPSS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올해 8월에 시행하는 3차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심화한 능력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아래는 자격증 취득내용과 SPSS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던 교육통계학 기말보고서이다.



[그림 5]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내용



[그림 6] 교육통계학 수강-SPSS 활용 방법 학습

2. 수업 및 발표 역량

글쓰기 과제 다음으로 많이 수행한 과제가 수업 실연을 비롯하여 과제물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특히, 교육학교과교육론을 시작으로 교육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을 수강하며 총 3번의 수업 실연을 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교생실습에서 공개수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초반에는 발표를 구상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떨렸는데,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하더라도 차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

한편 교육공학 강의를 통해 PBL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수강할 당시에는 어려워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PBL을 이후 대외활동으로 참가하였던 YWCA 금융 경제 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에서 구현해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놀러 와요, 경제의 숲’이라는 수업을 제작하게 되었고, 본선에 진출하여 실제로 수업을 구현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의 이론을 결합하여 하나의 짜임새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었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발표 역량을 길러주었다. 아래의 그림은 수업 및 발표 역량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결과물이다.

① 교과 결과물

[그림 7] 교육학교과교육론 교수학습과정안

[그림 8] 교육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수학습과정안

[그림 9]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 교수학습과정안

[그림 10] 교육공학 PBL 과제

② 비교과 결과물



[그림 11] YWCA 금융 경제 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강의안

3. 기타 역량

앞서 언급한 연구 역량과 수업 및 발표 역량 외에도 공동체적 역량, 이해와 포용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4년째 만남을 지속해온 학습공동체가 있다. 구성원들과 함께 전공 지식과 더불어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적 역량은 물론이고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친구들 외에 다른 동기들 혹은 선후배, 타과친구들과의 교류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하다. 이는 대외활동을 통해 보완될 수 있었는데, 하단의 우측 그림 2개가 그 예시이다. [그림 13]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숙형 대안학교인 한겨레계절학교에 참석했을 당시의 단체사진이다. [그림 14]는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건강취약청소년교육지원센터인 캔틴스쿨로 멘토링을 다녔을 당시 19년도 5월에 함께 참석하게 된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이다. 두 기관 모두 주변에서 쉽게 보기에는 어려운, 소수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기관으로,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림 12] 학습공동체
활동사진



[그림 13] 한겨레계절학교
단체사진



[그림 14] 캔틴스쿨
가족여행

4. 수상 경력(사진별도 첨부, [부록 11] 참조)

재학 기간 동안 아래의 수상 경력을 쌓았다.

- ① 학부생전공심화연구소모임 SM-URP 장려상 수상
- ② 고용패널조사데이터 브리프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③ YWCA 금융 경제 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④ 2020년도 2학기 스터디상생플러스 최우수상 수상

IV. 끝나치며

얼마 전 사범대학 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2주밖에 되지 않는 실습 기간에 담임 학급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5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이 들 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내온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기에는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짧은 시간인 만큼 교생실습 동안 누구보다 정성을 쏟았는데, 2주는 마치 4년간 공부한 내용을 압축시켜 보여주는 것 같았다. 행정 업무부터 부서별 다양한 주제의 연수, 공개수업과 학생 상담 등 그동안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해보는 기회였다. 교생실습을 마치고 소감문을 작성하며 대학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고, 뒤이어 졸업 포트폴리오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노력해온 흔적들을 보며 기분이 이상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신입생 시절과 졸업을 앞둔 지금 시기에 교육에 대한 마음가짐과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떠올려보았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활동만을 교육으로 정의 내렸던 시간을 지나 지금은 변화 가능성으로서의 교육이 가진 힘을 믿게 되었다. 필자 역시 교육을 통해 꿈을 꾸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는 지금의 눈앞의 과제를 마무리하기에 급급했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고뇌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돌아보니 너무 빠르게 지나온 것 같고, 과제물의 완성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무엇보다 스스로 가치관과 생각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헛된 노력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성장한 지점도 분명히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교육의 장이 끝나 더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만날 기회가 펼쳐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교육학과에서 배운 지혜들과 성장시킨 역량들을 바탕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좋은 곳에 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 내가 가는 그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자.” 필자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이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문장이다. 대학 생활을 하며 졸업하기 이전에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였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도록 한 4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내면을 가꾸는 노력을 지속해야겠다는 다짐 역시 할 수 있었다. 교육학적 지식은 아직도 부족하고,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역시 부족하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4년간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보려고 한다. 힘이 들거나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이 포트폴리오가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소원한다. 끝으로 나 자신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학과 학생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주신 모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 길을 함께 걸어준 동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결과물 목록 및 요약

연번	결과물 목록 및 요약	결과물 선정 이유	기타
1	교육행정 ICA	처음으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해준 과제로, 글을 오랜만에 다시 써야 할 때 종종 꺼내 보는 자료로서 결과물로 선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	교과 [그림 1] [부록 1]
2	교육정책론 기말보고서	질적 연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결과물로 학부에서 수행한 과제 중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투자한 보고서임. 실제로 사범대학 내의 모든 학과 생을 10명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코딩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었음.	교과 [그림 2] [부록 2]
3	SM-URP 연구보고서	연구 역량에 해당하는 글쓰기 능력과 체계적 접근을 시도했던 결과물로 친구들과 함께 완성한 첫 양적 연구 보고서임.	비교과 [그림 3] [부록 3]
4	2020 고용조사 브리프 경진대회 레포트	SM-URP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수정을 거듭하여 완성한 레포트로 외부 기관에서 첫 수상을 받게 해준 결과물이기도 함.	비교과 [그림 4] [부록 4]
5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에 엑셀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발적으로 취득하게 된 자격증임.	비교과 [그림 5]
6	교육통계학 수강 -SPSS 활용 방법 학습	SPSS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결과를 작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함.	교과 [그림 6] [부록 5]
7	교육학교과교육론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을 구상하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내는 능력과 발표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음. 또한, 주어진 시간 내에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음.	교과 [그림 7] [부록 6]
8	교육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을 구상하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내는 능력과 발표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음. 또한, 주어진 시간 내에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음.	교과 [그림 8] [부록 7]
9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 교수학습과정안	팀티칭을 통해 여러 교과(주제) 간의 융합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제로, 7,8번에 해당하는 교수학습과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업 및 발표 역량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음.	교과 [그림 9] [부록 8]
10	교육공학 PBL 과제	PBL을 구현해내는 데는 부족했던 결과물이지만, 금융 경제 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를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준 과제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음.	교과 [그림 10] [부록 9]
11	YWCA 금융 경제 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강의안	3년 동안 배운 교수학습방법과 수업 역량을 뽐낼 수 있었던 기회로,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최우수상을 받은 결과물이라 선정하였음.	비교과 [그림 11] [부록 10]